

# PACKAGING NEWS



##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 회의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 회의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 행사 가져
- (사)한국포장협회 경쟁력 강화연구회 추진
- (사)한국포장협회 워라밸 관련 포장인 특강 개최
- 오선진 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동원시스템즈(주)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부천시장상 수상
- 울촌화학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사)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 수상
- SPC팩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장 구축
- (주)서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패밀리기업' 지정
- 한국컨테이너풀 다화용 수송포장재 사업 참여
- 오리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

## 업계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단체장 및 실무자 회의 개최
-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2022년도 체육대회 개최
- 삼성전자 '2022 에코패키지 챌린지' 공모전 개최
- 한국콜마 핀업 컨셉 디자인 어워드 공동개최
- 휴비스 배민상회와 에코팻을 빙수용기로
- 몽고식품 몽고간장 BI · 패키지 리뉴얼
- 대상홀딩스 혜성프로비전 친환경 포장재 사용한 호주청정우 제품 출시
- KOTRA '서울푸드 어워즈 2022' 시상식 개최
- 'KOREA PACK 2022' 나흘간 46,457명 방문



(사)한국포장협회

## 연포장분과 회의 개최

회원 간 협력 강화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창순)가 지난 6월 9일 모임을 갖고 회원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순 위원장은 연포장분과위원회의 운영과 성격을 설명하고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회원 간 과당경쟁 기미가 보여 이를 자제하고 협력을 강화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 교환 및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협회 사업에 적극 동참해 공동 발전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협회는 코리아팩, 인쇄전 등에 협회관을 마련하고 회원사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해외 전시회에도 참가 또는 참관하여 해외 마케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창순)가 지난 6월 9일 모임을 갖고 회원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 잉크분과 회의 개최

원재료 동향 논의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신정열)가 지난 5월 31일 모임을 갖고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 원재료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신정열)가 지난 5월 31일 모임을 갖고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 원재료 확보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신정열 위원장은 “잉크 원부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원자재 확보도 어려워 잉크 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경영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럴 때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원자재 확보를 위한 외국의 동향도 공유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올 하반기와 내년 전망 등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 골프동호회 행사 가져

이글패 전달 등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회장 신정열)가 지난 6월 22일 모임을 갖고 화합을 다졌다.

동호회 회원들은 회원 간 단합과 교류가 강화되고 있어 협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회장 신정열)가 지난 6월 22일 모임을 갖고 화합을 다졌다.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달 이글을 기록한 임재윤 세미산업(주) 전무와 홍기정 (주)유한팩 상무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김영배 (주)씨오텍 대표이사가 우승을, 김보철 (주)진명하이텍 대표이사가 롱게스트, 윤석우 (주)신영화학 대표이사가 니어리스트로 수상하였다.

협회 7월 모임은 27일에 있다.

## (사)한국포장협회

### 경쟁력 강화연구회 추진

회원 간 협업 통한 과제 발굴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포장 경쟁력 강화연구회'를 운영한다.

이 연구회는 연포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포장 소재의 신개발과 환경대응 소재 적용 등 다양한 분야의 과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포장 경쟁력 강화연구회'를 운영한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설명회 모습.

제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화연구회는 올해 5개 과제 발굴을 통해 2023년부터 5년간 대중소기업 협업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발굴된 과제의 정부지원 요청, 해외마케팅 유저 발굴, 화상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는 올해 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위원,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설명회를 가졌다.

협회는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연포장산업을 발전과 판매 확대, 환경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사)한국포장협회

### 워라벨 관련 포장인 특강 개최

‘일과 행복의 균형적인 삶의 방법’ 주제로 열려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6월 16일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실에서 (사)한국포장기술사회와 협력해 ‘친환경 포장 전환시대의 포장재 변화와 대응’ 세미나와 ‘일과 행복의 균형적인 삶의 방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무법인 행복의 전재후 노무사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실천 사례와 근무혁신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6월 16일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실에서 (사)한국포장기술사회와 협력해 '친환경 포장 전환시대의 포장재 변화와 대응' 세미나와 '일과 행복의 균형적인 삶의 방법' 특강을 진행했다.

전재후 노무사는 “일하는 문화를 바꿔 회사의 성과와 근로자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포장협회는 포장업체의 위라벨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오선진 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공로부문

(사)한국포장협회의 오선진 전무이사가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오선진 전무이사는 한국포장협회 사무국을 운영하며 국내 포장기술 및 포장기업의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업계의 공동 번영과 단합을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 포장산업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공로를 인



▲ 오선진 (사)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가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용성우 포장기술 인협의회 회장, 오선진 (사)한국포장협회 전무, 임경호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받았다.  
 특히 회원사 공동 수출 방법과 홍보를 위해 해외 전시회에 협회관을 구성해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내 포장산업의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각 소재별로 산재한 포장관련 단체들을 모은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직을 역임,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주)**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부천시장상 수상**

‘재활용이 용이한 시트마스크용 단일재질 파우치’



▲ 동원시스템즈(주)의 ‘재활용이 용이한 시트마스크용 단일재질 파우치’가 지난 6월 14일 경기도 KINTEX 전시장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2)’ 시상식에서 부천시장상을 수상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주) (대표이사 조점근)가 지난 6월 14일 경기도 KINTEX 전시장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2)’ 시상식에서 부천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개발한 유기용제 저감기술이 적용된 재활용이 용이한 고차단성 PP 단일재질 파우치로, 나노 박막 코팅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산소 및 수분 차단성



을 확보하고, 무용제 래미네이션기술(녹색기술인증)을 적용해 알루미늄 없이 하이바리어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삼민화학공업(주)**

1968년 7월 1일 창립 54주년

**(주)상보**

1977년 7월 15일 창립 45주년

**(주)수정실업**

1987년 7월 1일 창립 35주년

**신한기계(주)**

1997년 7월 1일 창립 25주년

**(주)아이피씨**

1984년 7월 13일 창립 38주년

**(주)에이애피**

2009년 7월 12일 창립 13년

**(주)오리온**

1954년 7월 25일 창립 68주년

**(주)정원산업**

1977년 7월 8일 창립 45주년

**(주)제팩**

1996년 7월 2일 창립 26주년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울촌화학

###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사)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 수상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단일 소재 스넵포장재’

울촌화학(주)(대표이사 송녹정)이 지난 6월 14일 경기도 KINTEX 전시장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2)’ 시상식에서 (사)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울촌화학(주)의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단일 소재 스넵포장재'가 지난 6월 14일 경기도 KINTEX 전시장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2)' 시상식에서 (사)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을 수상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촌화학이 (주)농심과 함께 개발한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 소재 스넵포장재'는 제품의 설계, 생산단계부터 수거, 재활용 등을 고려해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하고 사용 후 재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포장 재질을 단일화한 친환경 포장재이다. 또한 가공성 및 내용물 보존성을 강화한 폴리프로필렌 단일재질이기 때문에 친환경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유통 중 수분 차단성, 산소차단성 등 식품 보존성이 우수해 포장 자체의 성능도 뛰어나다. 특히 단일소재이기 때문에 95%이상의 물질 재활용이 가능해 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포장재라 할 수 있다.

## SPC팩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장 구축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SPC팩(대표이사 김창대)이 제조업 공장을 친환경·저탄소형 공장으로 전환해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장'을 구축한다.

SPC팩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장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사는 친환경 녹색기술에 대한 차별성을 인정받아 2022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탄소중립형 스마트생태공장을 구축, ESG경영을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SPC팩은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이를 관리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월 2,1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창대 SPC팩 대표이사는 "SPC팩은 지난해부터 ESG경영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장 선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포장재 생산시설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팩은 지난해부터 SK지오센트릭, SKC, 롯데케미칼, 한화컴파운드 등과도 친환경 포장재 개발 MOU를 진행해 왔으며,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SPC삼립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식품 포장재에 적용을



▲ SPC팩 김창대 대표이사(첫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임직원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시작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식품포장재 인쇄업계 최초로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포함한 ‘녹색 기술’, ‘녹색 제품’ 인증 등 국가 녹색인증 3개 부문을 모두 획득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서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패밀리기업’ 지정**

인력양성사업 적극 추진



▲ (주)서일(대표이사 이영철)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으로부터 2022년도 패밀리기업으로 지정, 2024년까지 인력양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서일(대표이사 이영철)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이 지정한 2022년도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인력양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진공 연수원 패밀리기업은 임직원 교육에 적극적인 지역 중소기업을 매년 신규로 지정해 2년간 연수비 할인, 시설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운



영되고 있다.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은 올해 서일을 포함한 6개사를 패밀리기업으로 선정, 지난해 지정된 11개사를 포함해 총 17개사에 대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일은 지난 5년간 해마다 전 직원 집합교육기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품질·생산 관련 교육, 연구개발 교육, 영업 및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또한 현장은 분임조 별로, 사무실은 직무별로 개인별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서일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구경북연수원을 활용해 인력 양성에 힘썼다. 앞으로도 근로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컨테이너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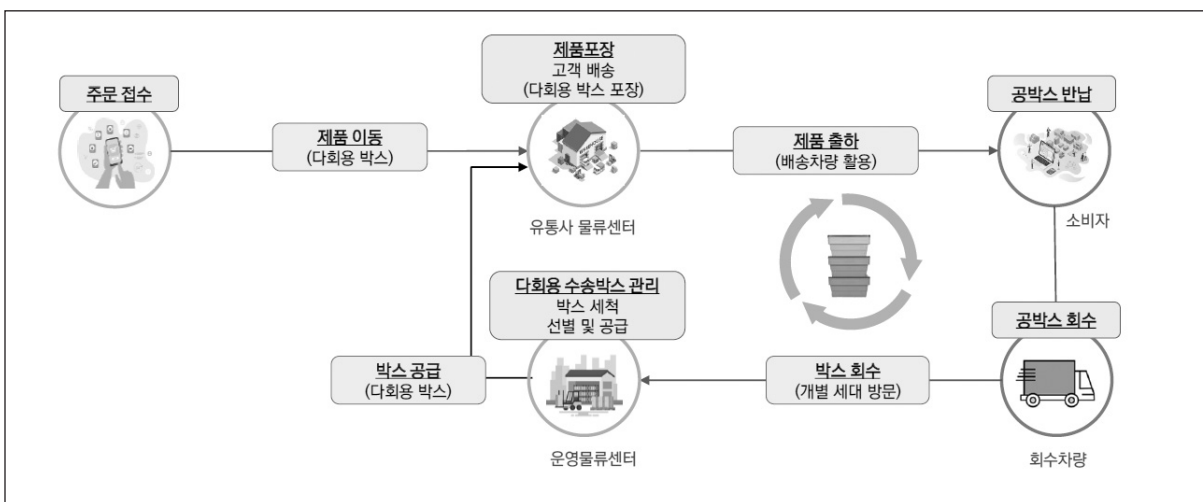
###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업 참여

일회용 폐기물 감축 나서

로지스올그룹 한국컨테이너플(이하 KCP)이 컨테이너 풀링(렌탈)사업의 다회용기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가 주도하는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업에 협력한다.

이에 지난 6월 9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환경부 주관, 한국자원순환포장기술원 주최로 개최된 ‘다회용기 추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 자원순환 포럼’에서 다회용 수송포장 사업의 운영주체기업으로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다회용 수송포장재사업은 일회용 포장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배송 부문에 다회용기 포장 적용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한 번 쓰고 버려지던 포장용기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회용 폐



▲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업 운영 프로세스



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CP는 각 유통사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포장용기 공급과 포장용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포장용기 세척을 위한 운영센터, 용기 회수 및 공급을 위한 차량 운영을 지원한다. 다회용 포장용기에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감안한 소재를 적용하고 유통사 사용 환경과 물류 환경에 맞춘 표준규격을 도입하였으며, 다회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제거에 용이하도록 개발했다.

스마트 물류관리시스템은 제품 및 포장용기 개체를 관리하고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온도관리가 중요한 신선식품 물류에 적용하여 콜드체인 전용 용기에 내장된 NFC 온도센서와 휴대폰을 통해 온도, 위치,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컨테이너 풀링 시스템 사업을 운영하면서 구축한 포장용기 회수 및 공급차량과 세척센터 인프라를 활용한다. 수송용 포장재의 유지 관리와 포장 제품에 대한 품질 유지를 위해 사용 완료된 포장용기는 회수 후 세척 과정을 거친다.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다회용기 전용 세척센터에서는 연간 6,000만개의 포장용기가 세척되고 있다.

이커머스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택배 물동량은 2021년 기준 약 33.7억 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1회용 수송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185만 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나마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업들의 ESG경영활동이 증가하면서 포장부문의 다회 사용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포럼 발표자로 나선 이연승 KCP 소비재마케팅본부장은 “일회용 포장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의 다회사용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제품을 포장하는 기업과 제품을 주문하는 소비자 모두 포장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오리온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540여 톤 감축 예상

오리온은 익산공장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6월 16일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오리온 익산공장은 그동안 실행해온 온실가스 저감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 개선 및 고효율 설비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효성을 인정받아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탄소중립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 금액 중 50%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오리온 익산공장은 배합기 및 오븐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 폐열을 활용한 온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기존 공기압축기를 고효율 공기압축기로 교체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540여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리온은 윤리경영에 기반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주공장과 익산공장이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청주공장 ‘Only 오리온’ 분임조가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스낵 제조공정 설비 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통령상 금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내외 법인 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3자 검증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데이터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4월에는 청주공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오리온 관계자는 “수년간 꾸준히 실행해온 온실가스 저감화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까지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윤리경영과 연계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 단체장 및 실무자 회의 개최

단체 간 협력사업 발굴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한영, 이하 연합회)가 지난 6월 14일 경기도 KINTEX 제1전시장 VIP룸에서 단체장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한영, 이하 연합회)가 지난 6월 14일 경기도 KINTEX 제1전시장 VIP룸에서 단체장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새로 선임된 각 단체의 회장 및 실무자들의 상견례가 있었다.

이어서 ▲포장진흥법 추진, ▲이사회 정기 개최, ▲단체 간



협력사업 발굴, ▲연합회 장기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신입 단체장들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협력사업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7월 중 다음 모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 2022년도 체육대회 개최

70여명의 회원 참석해 다양한 경기 진행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회장 용성우)는 지난 6월 11일 경기도 김포대명초등학교에서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족구, 배구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용성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 더욱 반갑다”며 “이번 춘계 체육대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후에는 회원 소속사에서 찬조한 물품들을 부상으로 주는 등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회장 용성우)는 지난 6월 11일 경기도 김포대명초등학교에서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 삼성전자

## ‘2022 에코패키지 챌린지’ 공모전 개최

TV 포장재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발굴



▲ 삼성전자가 '2022 에코패키지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삼성전자가 TV 포장재를 업사이클링(Upcycling) 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2022 에코패키지 챌린지’ 공모전을 환경의 날인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 TV는 제품 포장단계에서 생활 가구로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에코패키지’를 적용해 잉크 사용을 90% 감축하고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에코패키지는 포장 박스 각

면에 인쇄된 도트(Dot) 패턴을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책꽂이·선반·반려동물의 집 등 다양한 생활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또 패키지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조립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에코패키지 챌린지는 제품 개봉 후 버려지던 포장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해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에코패키지 챌린지는 2022년형 삼성 TV를 구매한 고객이 해당 제품의 포장박스를 활용해 응모할 수 있다. 에코패키지로 작품을 만들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필수 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후 삼성닷컴에서 이벤트 참여에 등록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에코패키지 챌린지 영상 공유 ▲에코 트리 그리기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심사와 소비자 투표를 거쳐 8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등 1명에게는 55형(138cm) ‘더 세리프(The Serif)’, 2등 2명에게는 ‘더 프리스타일(The Freestyle)’, 3등 7명에게는 ‘JBL FLIP 6 블루투스 스피커’를 수여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친환경 화장품·생활용품 브랜드 동구밭의 ‘올바른 설거지 워싱바’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서울 여의도 IFC몰 노스아트리움에서 ‘에코 트리’를 포함한 ‘Love Earth Love Us’ 전시를 진행했다. 지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에

코 트리는 에코패키지로 만든 높이 3.6m의 조형물로, 현존하는 나무 중 가장 키가 큰 나무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하이페리온(Hyperion)’을 콘셉트로 제작됐다. 에코패키지를 통한 적극적인 업사이클링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에코패키지 챌린지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삼성 TV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업사이클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나만의 작품도 만들어 보는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콜마

### 핀업 컨셉 디자인 어워드 공동개최

국내 패키징산업 디자인 활성화

한국콜마가 ‘2022 핀업 컨셉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 국내 패키징산업 디자인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핀업 컨셉 디자인 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가 주최,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한국콜마와 퍼시스가 공동 개최하는 대학생 공모전이다. 주최 측인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는 1972년에 설립된 국내 산업 디자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분야(kaid)와 기업 분야(한국콜마·퍼시스)로 나뉘어 공모한다. 일반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고 각 상격별로 국제 학생 디자인 워크숍 참가비 지원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기업 분야 본상 수상자에게는 현업 체험 기회 및 채용연계형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콜마는 기업 분야에서 친환경 화장품 용기 디자인 작품을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출품 자격은 기졸업자 혹은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하고 개인 또는 2인 팀으로 출품 가능하다. 본상인 골드·실버·브론즈상을 수상한 개인 및 팀의 디자이너 1명에는 한국콜마 패키징스튜디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전담



▲ 한국콜마가 2022 핀업 컨셉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 국내 패키징산업 디자인 활성화에 나선다.

멘토와 함께 화장품 용기 디자인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추후 공개 채용시 서류 전형도 면제된다.

김형상 한국콜마 패키징스튜디오 상무는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전의 공동 개최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친환경 화장품 용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콜마 기업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휴비스

### 배민상회와 에코펫을 빙수용기로

아이스팩 필요 없어 포장 비용 절감



▲ 휴비스 에코펫으로 만든 빙수 용기

성큼 다가온 여름 날씨에 배달앱을 통해 빙수를 주문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화학섬유소재 전문기업 휴비스(대표이사 신유동)는 최근 배민상회와 함께 폴리에스터(PET) 발포 소재인 에코펫(ECOPET)을 적용한 빙수 용기를 출시했다. 지난 3월 점용기 출시 이후 2번째 에코펫 적용 제품이다. 기존 빙수 용기는 종이나 투명 PET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빙수가 녹지 않도록 보냉팩에 아이스팩을 넣어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휴비스 에코펫은 PET에 미세한 공기층을 넣은 시트 형태의 소재로 열차단성이 우수해 음식의 온도를 장시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용기 겉면은 뜨겁거나 차갑지 않아 취급에 안전하다. 환경호르몬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식품용기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휴비스와 배민상회는 지난해부터 용기의 기능성은 높이고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면서 인체에 안전한 용기 개발을 위해 힘써왔다. 첫 번째 개발된 ‘뜨끈한 찜용기’는 일반 찜용기에 비해 8도 이상 보온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올 3월에 출시하여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차가움이 오래가는 빙수 용기’는 일반 빙수 용기에 비해 우수한 보냉력으로 배달 후 빙수를 섭취하는 동안에도 녹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 빙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종이 용기에 비해 내구성이 우수하며 아이스팩을 사용하지 않고 용기 자체만으로 우수한 보냉 효과를 나타내어 포장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휴비스 신유동 사장은 “배달음식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포장하는 용기 소재 역시 새로운 기



능이 요구된다. 에코팻의 탁월한 보온·보냉 능력이 음식 본연의 모양과 맛을 장시간 유지시켜 주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며 “휴비스는 배민상회와 함께 안전한 식품용기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7년 국내 최초 개발된 에코팻은 국내 및 해외 패키징 관련 시상에서 다수의 수상을 하였으며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식품용기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 완충보호재와 같은 각종 포장재로도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기기 및 가전 등 각종 산업 제품의 경량 내장재 등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 몽고식품

### 몽고간장 BI · 패키지 리뉴얼

창업 117주년 기념

몽고식품은 창업 117주년을 맞아 자사를 대표하는 간장 브랜드인 몽고간장의 BI(brand identity) 및



▲ 몽고식품이 창업 '117주년' 맞아 몽고간장 BI ·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했다.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몽고식품은 몽고간장의 기존 로고를 다듬어 시인성을 높이고, 패키지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간장이 떨어지며 물방울이 튀는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했다.

또한 몽고간장의 메인 라인업인 송표와 송표프라임, 송표골드에는 메탈릭 골드 색상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다른 제품에는 제품별 색상을 지정해 누구나 쉽게 색만으로도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각 라벨에는 제품별 사용처를 표시해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쉽고 편하게 요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몽고식품 홍보 담당자는 “종합식품회사로서 성장하면서 제품들이 날로 늘어나 브랜드별 분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추후 생산되는 신제품과 간장군을 분리해 많은 고객들에게 보다 쉽게 제품의 특징을 알리고 명확하게 브랜드가 인식되도록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높은 인지도를 가진 몽고간장 라인업을 우선적으로 리뉴얼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뉴얼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다양한 채널에서 진행하며 소비자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대상홀딩스 혜성프로비전

### 친환경 포장재 사용한 호주청정우

이마트와 FSC 인증 포장재 적용

대상홀딩스 혜성프로비전이 이마트와 협업해 FSC 인증 포장재를 사용한 호주청정우 특수부위 8종



제품을 이마트에서 선보였다.

이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해당 용기에 담긴 호주청정우 꽃갈비살, 안창살, 토시살, 살치살, 치마살, 갈비살, 등심, 안심 등 총 8종의 특수부위를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 행사에 포함되는 호주청정우 제품에는 업계 최초로 플라스틱(PP) 용기를 대체해 FSC 인증을 획득한 종이 용기가 사용됐다. 비영리 단체 국제산림관리협회의가 만든 FSC 인증은 환경적,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인증제도이다. 이 인증은 엄격한 10개 원칙을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생산된 목재·종이 용기 등의 상품에 부여된다.

이번 노력을 통해 이마트는 매월 약 10톤, 연간 총 12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1년 판매량 기준). 이에 따라 소비자들 또한 매립, 소각되는 생활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 사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임승현 바이어는 “이마트는 환경을 생각하

는 착한 소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환경친화적 용기에 담은 호주청정우로 맛과 건강, 그리고 환경까지 모두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혁상 호주축산공사 한국대표부 지사장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호주축산공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KOTRA

### ‘서울푸드어워즈2022’ 시상식 개최

무림피앤피(주) ‘펄프몰드’, 에코패키지상 수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6월 7일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202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푸드 2022)’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는 ‘서울푸드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한 ‘서울푸드 어워즈 2022’는 ▲힐링(웰빙 푸드, 건강식품, 오가닉 식품) ▲이노베이션(제조 방법, 패키지 등 혁신적인 식품) ▲기호식품 ▲수입식품 ▲에코패키지 등 총 5개 분야로 나뉘어 우수 제품을 선정, 시상했다.

올해에는 특히 ESG 전시회의 저변 확대와 트렌드에 맞춘 ▲에코패키지 분야를 추가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친환경 식품 포장재인 무림피앤피(주)의 ‘펄프몰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무림피앤피(주)의 펄프몰드 용기는 100% 국내산 천연 펄프로 제작돼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다양한 산업



▲ 대상홀딩스 혜성프로비전이 이마트와 협업해 FSC 인증 포장재를 사용한 호주청정우 특수부위 8종 제품을 이마트에서 선보였다.

군에서 활용 가능해 '제로 웨이스트'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힐링 분야에서는 국내 농수산물식품을 사용해 건강하고 신선한 자연 원물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서민프레시 농업회사법인(주)의 '자연을 담은 모듬부각'을 비롯해 (주)서울칩(서울칩 철판김치볶음밥), 농업회사법인(주)나은(제주향톡톡), 강산소곡주(강산주조 한산소곡주 생주 16%) 등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밀키트를 비롯해 K푸드의 수출 확대에 따라 기여한 ▲이노베이션 분야에는 워터에이징 공법을 손질된 장어에 적용해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를 살려낸 웰피쉬가 선정됐다. 웰피쉬(주)의 '장어포'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진공포장으로 제작돼 수출 전망이 밝은 제품으로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 비엠푸드(주)(1분 단감

소스 멸치볶음), (주)아우노(아우노 천연 흑당시럽), 태경농산(주)(베지가든 숯불향 떡갈비, 속이 꽉찬 한입완자)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도 ▲기호식품 분야에서는 (주)베러덴베러(멜로팝 건조마시멜로우 시리얼), 성경순만두(콘치즈만두), (주)선해수산(황홀태), 농업회사법인(주)가야양조장(프리미엄 막걸리 가야/님그리다)이, ▲수입식품 분야는 베스트로(주)(카나리 스낵 버터), (주)성유엔터프라이즈(토스키 카라멜 소스), (주)엠디에스(통살새우패티), (주)케이에스에프(잉글리시 티 샵)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서울푸드 어워즈에 선정된 각 기업들에게는 시상과 함께 전시장 내 어워즈 특별존에서 제품 홍보 기회와 함께 코트라 인증서와 인증로고를 발급받아 수출이나 유통, 홍보마케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6월 7일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202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는 '서울푸드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

## 'KOREA PACK 2022'

### 나흘간 46,457명 방문

국내 최대, 아시아 TOP 패키징 전시회

한국포장기계협회, 월간포장, 경연전람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공·패키징 전문전시회인 'KOREA PACK 2022(국제포장기자재전)'이 지난 6월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폐막했다. 전시 첫날 열린 코리아팩 개막식에선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 한국포장기계협회 이시영 회장, 한국포장협회 임경호 회장을 비롯한 패키징 관련 단체장 23명이 참석했다. 669개 패키징 및 관련 기업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식품, 음료, 제과·제빵,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

품, 화학산업 등 전 산업의 제조공정, 패키징 기계, 친환경 패키지 원료·재료 및 컨버팅, 패키징 이후에 이어지는 물류·유통·자동화 분야 전체 공급망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정상급 패키징 기계 메이커들의 신제품이 대거 공개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집중한 신제품들을 선보여 고객의 시선을 잡았다. 한독자동기(스틱자동포장기), 리팩(2열식 로타리포장기), 홍아기연(블리스터, 카토너 등 풀라인 자동화설비), 세종파마텍(캡슐 펠링기), 카운텍(연질캡슐 생산부터 3차포장), 영테크팩(고속형 스틱 3면 자동포장기), 피티케이(정제타정기), 백천기계(펠링패키징) 등 전시장 명품관에 위치한 이들 기업부스에는 고성능 신제품을 보기 위한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 한국포장기계협회, 월간포장, 경연전람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공·패키징 전문전시회인 'KOREA PACK 2022(국제포장기자재전)'이 지난 6월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폐막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포장기계 단체인 한국포장기계 협회(회장 이시영)는 80개 회원사들이 참가, 약 7,200m<sup>2</sup> 전시공간을 확보해 패키징 공정라인인 EOL(End of Line)기술에 사용되는 신기술 포장기계를 업계 사용자들에게 소개하였다. 솔팩, 아남자동기, 에이치에스팩에서는 스틱자동포장기를, 누리팩, 주팩, 이지시스템 등에서는 로타리포장기를 선보였다. 이밖에도 이탈리아, 인도에서도 국가관을 마련해 국내 사용업계에 자국의 패키징기업을 적극 소개하였다.

‘지속가능한 미래지식산업으로 주목받는 패키징 산업’이라는 주제로 전시기간 중 주목받은 특별관이 있었다.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 기술센터는 개막 첫날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시상식과 함께 2022년 수상작 전시코너를 선보였다. 올해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출품한 RE:born(Cr-PET)가 차지했다. 산업부 장관상에는 삼화/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레코/위두텍, 씨제이제일제당, 태양, 씨엔제이글로벌이 수상하였다. 그밖에 한국인삼공사, 아모레퍼시픽/동원시스템즈, 빙그레, 연우, 울촌화학/농심, 켈리, 엘지생활건강, 제로하우스, 삼성전자로지텍, 아워홈, 코웨이, 삼성메디슨도 수상하였다.

환경 관련 이슈 중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패키징과 관련한 컨퍼런스도 마련되었다. 이번 지속가능 플라스틱 패키징 특별전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패키징에 앞장서는 공급기업들이 한곳에 모여 포장산업 내에서 플라스틱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린플라스틱연합(총장 황정준)은 270m<sup>2</sup>의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회원사 종합부스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롯데케미칼,

산수음료, 호명화학공업, 에코패키지솔루션, 에코매스, 유도, 이솔산업, 전남테크노파크, 금성필름, 이폴리텍, 화진산업 등 18개 기업, 단체가 참여하였다. 아울러 6R정책을 살필 수 있는 상담존과 탄소중립기술부터 PLA, 유니소재 등 친환경 소재, 용품, 필름 등이 전시되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수)은 바이오플라스틱을 주제로 생분해시장이 다가오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조합 회원사의 신제품을 패키징업계에 소개하였다. 조합공동관에는 일신하이폴리, 도일에코텍, 동원시스템즈, 도원바이오테크 등 11개사가 전시와 함께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플라스틱사출성형기 및 자동화기기분야에서도 특별전에 참가하였다. LS엠트론은 기내용 와인컵 사출장비인 전동식 사출성형기를 공개해 초고속, 초정밀, 하이사이클 등 기술력을 뽐냈다. 특히 엘에스엠트론 측은 이번 특별전에 참가하는 친환경 원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PLA와 같은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를 패키징에 적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포장, 물류 분야의 신제품들이 대거 공개된 이번 KOREA PACK 2022에는 약 4만 6,457명의 사용자, 업계관계자, 바이어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뤘다.

주최 측인 경연전람 김길수 전무는 “KOREA PACK 전시회는 우리 포장업계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기존 고객과의 만남은 물론 새로운 거래처, 파트너, 직무교육 등 오프라인 전시회만이 주는 이점이 많아 모두가 기다리던 행사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참가사들이 사용자들을 만났고 상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시 이후에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졌으면 바란다”고 밝혔다.